

민예전	<h1>BUDDHANARA</h1>
-----	---------------------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매월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매월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매월 셋째주 일요일 11시 전법기도 법회
 매월 넷째주 일요일 11시 108 대참회 기도 법회
 다섯째주 일요일 야외 특별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이달의 법구경: -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 된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듯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율령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003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삼보일배의 감동

5월 21일 아침, 새만금 살리기 '삼보일배'단이 과천을 지나 남태평을 넘어 서울에 입성한다는 가슴 설레는 소식이 전해져 왔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수경 스님이 탈진하여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비보가 날아왔다. 스님의 정신력을 믿었지만 불안했다. 다행히 위기는 넘겼고 안정을 위해 강북삼성병원으로 옮겨졌다. 얼마 후 병원을 찾은 총무원장 법장 큰스님은 수경 스님의 손을 꼭 잡으시고 "화상, 몸 좀 돌보면서 하시오. 이제 스님의 몸이 스님 몸이 아니지 않소" 하며 안타까워 했다.

- 환경운동 투쟁탈피 새방법 제시 -

그후 열흘이 지난 5월 31일, 대장정을 끝내는 회향날이다. '삼보일배'. 서서 세 걸음으로 걷고, 엎드려 하듯한 벌레처럼 1배 하며 기어서 걸어온 800리 길이다. 고행의 대장정 두달 5일만이다. 누가 인간도 아닌 생명을 위해 이처럼 긴 고행의 길을 걸어온 적이 있는가? 환경운동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할 역사적 사건이다. 나는 삼보일배단이 세운 명분과 목적뿐 아니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그리고 과정에서 보여준 의미는 이보다 더 깊다고 생각한다. 우선 환경운동이 '투쟁'이 아니라 상대를 '감동'시켜야 한다는 바람직한 운동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동안 반독재와 민주화 과정에서 태어난 시민사회단체가 민주화를 달성한 후, 새롭게 설정한 과제 중 하나가 환경문제였다. 이들 단체가 환경을 주요 과제로 삼은 것이 국민 일반의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정부 개발정책에서 환경 가치를 높게 반영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는 했다. 그러나 투쟁 일변도 행동습관과 방법으로 환경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그런데 이번 성직자 중심의 삼보일배단은 "정부가 잘못했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어. 세상을 그렇게 만든 것이 나이기 때문이니까,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지..."라는 수경 스님 말씀처럼 묵언과 참회의 긴 고행으로 '감동'시킴으로써 생명에 대한 관심과 생명간 공존과 평화의 필요성을 국민의 마음 속에 깊이 각인시켰다.

또 한가지 깊이 생각해볼 일은 '생명평화'와 '종교평화'의 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의 경험적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즉 인간을 낮추면 생명이 보이고 자기를 낮추면 사람이 보일 것이라는 사상을 공유한 것이다. 사람을 죽여 자른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걸고 다닌 살인마 '앙굴라마'가 그 걸을 걸어가는 부처님께 "수도하는 놈아, 잠깐 멈추어라!"고 하자 부처님은 "나는 처음부터 멈추어 있지 않았느냐. 너야말로 멈추어라!"고 말했다. 그러자 "걸으면서 멈추었다 하니 무슨 말이나!" 하고 앙굴라마가 되물으니 부처님께서는 "나는 실로 언제나 멈추어 있다. 나는 항상 모든 생물에 대해 해칠 뜻을 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조금도 자제함이 없이 매일 살인을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멈추지 않은 것이다"라고 가르침을 주었다. 이처럼 '생명에 대한 살의와 행동을 멈추고 존재하는 바 모든 사물의 근본이 모두 평등한 것을 바라보고, 세간에 미친하고 어려움에 처한 것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제해야 하며(平等觀諸法 悲心求世間), 사람들은 애착과 탐욕의 지옥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된다(今出愛獄 今得大安)'는 화엄경 말씀처럼 네 분 성직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했다.

- '생명평화의 길' 경험적 깨달음 -

그리고 또 한가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에게 따라 행함이 아니오. (중략)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역사자들이니라"는 성경 말씀이나, "진실한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있는 것이다. 나를 진실로 보는 자는 법(진리)을 보는 사람이다"라고 병들어 움직일 수 없는 바카리에게 행한 부처님 말씀에서 보듯 모든 종교인들이 중요시해야 할 것은 진리와 근본이다. 그런데 진리보다 사람에게 집착하여 자기 교주만이 위대한 것처럼 대립각을 세워왔던 종교계 현실 속에서 서로 다른 종교인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짓'의 허물을 벗고, 생명평화가 인간평화의 기초가 된다는 진리 앞에 하나가 되어 한길을 같은 방법으로 걸어온 것이다.

네 분 성직자가 마지막 밤을 지새운 조계사 경내 천막이 있던 빈 자리를 돌아 내 쉼 곳으로 향한다.

<현고/조계종 기획실장>

-경향신문에서 발췌-

백일법문의 핵심은 '中道'

성철스님 탄신 90주년 학술회의

1967년 해인총림의 방장에 취임한 성철스님이 동안거 결계 대중들에게 약 100일에 걸쳐 배운 설법을 모은 <백일법문(百一法門)>. 출가 수행자뿐만 아니라 재가 불자들도 성철스님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텍스트이다. 지난 10월 30일 오후 1시 동국대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학술회의 '백일법문의 선과 교학사상'은 성철스님 탄신 90주년을 맞아 그 사상의 총체적 정수인 백일법문의 학술적 의미를 조명하는 시간이었다. 세미나의 키워드는 '중도(中道)'와 '불이(不二)'였다.

서재영(동국대 강사)씨는 '백일법문에 나타난 선교(禪敎)관'을 주제발표하면서 스님이 선만 추구하고 교는 부정했다는 통설과

달리 선교 회통의 중도적 입장을 견지했음을 역설했다. 서씨는 "성철스님은 중도를 중심으로 선과 교가 모두 깨달음을 향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자리매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선과 교는 분별을 부수는 깨뜨림의 과정을 거쳐 본래 하나인 근본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 서씨는 스님이 강조한 쌍차쌍조(雙遮雙照)를 언급했다. "양변을 버리면 모든 상극적인 것이 서로 통한다"는 뜻. 선과 교라고 하는 차별을 버리고 나면 선이 곧 교이고 교가 곧 선이 되는 진공(眞空)이 된다. 중도의 입장에서 결국 차별적 선과 교는 둘이 아님(不二)이 된다. 일본 구마자와 대학에서 온 이시이 슈도 교수(불교학부) 역시 '돈오돈수설 수용의 과제'를 발표하면서 "돈오돈수도 돈오점수도 그저 방편이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궁극적 깨달음인 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스님의 가르침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며 중도를 집중적으로 탐색했다. 장영섭 기자 (flowergirl@ibulgyo.com)

법보신문 추천 10 대 기초교리 사이트

불교관련 인터넷사이트가 단순한 불교 소개 차원을 넘어 심도 있는 교리공부는 물론 수행의 길잡이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초심자들이 불교를 쉽고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경전설명과 함께 불교칼럼, 관련사진 등을 마련해 불교의 세계관을 소개하고 사이버 법당도 개설한 사이트들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많은 사이트에서 불교교리를 소개하고 있지만 그 중 튀는 사이트는 단연 무심불교학당, 서재영의 불교기초교리강좌, 목탁소리, 인터넷불교교육원, 울림목탁, 부처님나라, 수심선원, 인연지기와 함께 하는 불교이야기 등이다. 이들 사이트들은 초심자는 물론 베테랑 불자들이 보기에든 전혀 손색이 없다.

'무심불교학당'(pogyosa.net)은 불교를 알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기초교리, 한국불교, 중국불교, 인도불교, 비교종교, 불교상담, 경전의 이해, 사이버법당, 불교자료실, 불교이미지자료실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불교음악도 들을 수 있다. 또 포교사를 준비하는 불자들을 위해 기출문제들까지 제공하고 있다. 깨끗한 디자인도 돋보인다.

'서재영의 불교기초교리강좌'(www.buruna.org)는 98년초 개설돼 수십만명이 이곳 사이트를 방문할 정도로 유명한 사이트가 됐다.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 불교의 계율과 경훈, 각종 경전강좌, 특히 선수행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조사어록 등 볼거리가 풍부한 대표적인 불교교리 사이트다. 2000년 3월 개설된 '인터넷 불교교육원'(compassion.buddhism.org)도 불교교리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좀더 깊이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수십 개의 불교학습 교재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법상 스님의 목탁소리'(www.moktaksori.com)는 불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담고 있다. 특히 생활 속에서 불교를 실천하고자 마음을 일으켜 심출가(心出家)한 수행자들의 지침서 될 수 있는 사이트다. 은은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생활수행만담, 그리고 금강경, 반야심경에 대한 교리설명에 대한 설명도 눈에 띈다.

'수심선원 사이버법당'(www.susimtemple.com)에도 불자들이 알아야만 하는 기초교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특히 직접 참선 수행을 알 수 있도록 참선입문, 기초좌선법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인연지기와 함께 하는 불교이야기'(bulgyo.wo.to)도 불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사이트의 하나다.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불교문화와 사찰예절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곁들여 있다. 특히 큰스님들 사이에 주고받았던 편기를 보는 즐거움은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 '명선 스님의 울림목탁'(paramita.pe.kr)도 반야심경, 예불문, 천수경, 백팔참회, 신묘장구대다라니, 법성계, 발원문, 반야심경, 금강경, 아미타경 등 경전 내용을 한글로 볼 수 있으며, 찬불가, 동자승 및 부처님 이미지 등을 볼 수 있다. '부처님 나라'(myhome.hanafos.com/~budsong)도 아직 다 완성되지지는 않았지만 계율, 불교상식, 불자예절 불교명언, 각종 경전에 대한 소개 등이 있으며, 불교의 목적, 부처님이란, 불교가 이상승배인가 하는 초심자들이 궁금해 하기 쉬운 것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다.

'이재윤과 함께하는 불교교양 강좌(studybud.buddhism.org)는 불교사전, 불교강좌, 불교자료실 등이 실속있게 담겨 있다. 특히 비롯해 교리 뿐 아니라 신행에 도움을 주는 코너 등도 마련돼 있어서 인지 이곳을 찾는 방문객도 벌써 20 만이 넘었다. 이밖에도 정범스님의 불교이야기(jb8985.buddhism.org)의 홈페이지에는 기초교리에 대한 소개와 특히 금강경과 반야심경 등을 영문으로 볼 수 있으며 수미산(sumisan.hihome.com)에는 기초교리가 소개돼 있으며 특히 염불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다.

불교기초교리 알려주는 사이트

무심불교학당 pogyosa.net

인터넷 불교교육원 compassion.buddhism.org

수심선원 사이버법당 www.susimtemple.com

명선 스님의 울림목탁 paramita.pe.kr

이재윤과 함께하는 불교교양 강좌 studybud.buddhism.org

수미산 sumisan.hihome.com

서재영의 불교기초교리강좌 www.buruna.org

법상 스님의 목탁소리 www.moktaksori.com

인연지기과 함께 하는 불교이야기 bulgyo.wo.to

부처님 나라 myhome.hanafos.com/~budsong

정범스님의 불교이야기 jb8985.buddhism.org

법회소식 NEWS

- 불기 2547년 5월 3째주에 있었던 전법기도 법회에는 신도 5계를 받아지니고 부처님의 제자됨을 약속한 불자님들은 16분들입니다. 그중 9분들은 점심공양후 1자 1배 반야심경 사경법회까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사찰에서는 불명으로 신도님들을 호명해 주십시오. 여러가지 상황으로 이번에 수계식에 동참하지 못한 불자님들은 다음번에는 꼭 받아 지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됨을 부처님전에 약속드렸으면 합니다.
- 모두가 축하합니다. 그동안 숙원하던 일이 바쁘신 와중에도 진성 심환우 거사님, 일각 김영신 거사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힘을 기울여주신 결과 불국사 인터넷 홈페이지가 오픈 되었습니다. 두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많은 이용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buddhanara.net 그외에 .com .org 도 .net 로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사찰 홈페이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자님들의 좋은 의견이나 질책도 참고 하겠으니 건의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5째 주가 있는 6월에는 둘째주 일요일에 특별야외법회를 Eckert's Farm 과 Laderman Park 에서 갖습니다. 사찰에서 오전 10시에 모여서 출발하며,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농장은 사찰에서 차로 40여분 걸리는 지역에 위치한 Eckert's Farm 에서 딸기를 따니다. 농장에서 딸기를 따고 바로 옆에 위치한 Laderman Park 에서 점심공양 및 운동회가 있습니다. 진행은 장 경래거사님과 총무 보광 이진욱 거사님께서 합니다. 모두 협조해서 즐거운 기억에 남는 야외법회가 되도록 힘씁시다.
- 기후사정과 딸기 농장사정으로 인해서 5째주에 있을 특별 야외법회는 2째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3째주는 인등 기도 법회, 넷째주는 전법 기도 법회, 그리고 다섯째주는 대참회기도 법회가 있습니다. 넷째주와 다섯째주 법회는 주지스님이 후원회 법회차 한국에 다녀 오시기 때문에 스님없이 신도님들이 법회를 해야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지스님, 해산 이창호 거사님, 대덕심 문말달 보살님, 그리고 일각 김영신 거사님등이 조지아주 아틀란타를 무사히 다녀 왔습니다. 아틀란타에서는 현심행 김설아 보살님 댁에서 머물고 우담화 보살님등 다수의 신도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특히도 현심행 보살님댁에서 이번에 새 집을 사셔서 안택기도도 여법하게 마쳤습니다. 새 집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기원드립니다.
- 아틀란타에서 거주하고 계신 현심행 보살님께서 카세트 법문 2질 (관세음보살 보문품 법문 테이프, 승산행원선사 무문관 법문 테이프)과 지광스님 법문 테이프 및 법화경 테이프 14개, 관세음보살 보문품경 1권을 보내왔습니다. 전법하는데 쓰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L.A.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용담 김태완 거사님께서 상의 12벌, 하의 긴 것 15벌, 하의 짧은 것 2벌, 단주 53개, 염주 목걸이 9개, 그외 어린이용 액세서리 다량을 전법하는데 쓰라고 시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주지스님이 안계시는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모든 신도님들이 힘을 합쳐서 사찰을 관리합니다. 특히도 사찰의 야채밭은 모든 신도님들을 위한 양식이니 각별히 관리해 주십시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